

2021년도 인권담당관 세입·세출 예산안

## 제 안 설 명 서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  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 
인권담당관 김병기입니다.
  
- 오늘 제298회 정례회 2021년도 인권담당관  
세입·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아  
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 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  
- 인권담당관 2021년도 예산은,  
최근 변화하는 인권환경에 대응하여  
시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증진해 나가는 것을  
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.
  
- 그럼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 
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안에 대해  
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##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

- 2021년도 인권담당관 예산편성방향입니다.
- 인권담당관은 2021년도에도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되, 변화하는 인권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.
- 이를 위해,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을 통한 인권침해 조사·구제뿐만 아니라, 인권교육·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등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- 또한, 인권위원회 운영,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등을 통해, 인권현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시정권고에 따라, '범죄피해자 보호 지원'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균형을 이루고 지원 단체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# 2021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 총괄

-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  
-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백 8십 9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십 4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  
-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5천 7백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15억 6천 2백만 원 대비 2억 5백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이며, 이 중 사업비는 13억 원이고, 행정운영경비는 5천 7백만 원입니다.

## 세입예산안

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
2021년도 세입예산안은

전년도 3백 7십 5만 2천 원에서

1십 4만 3천 원을 증액한

3백 8십 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○ 이는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과

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으로

최근 3년 동안의 평균치로 추계하여

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.

## 세출예산안

-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  
- 2021년도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총 11개 세부사업, 13억 5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  - 첫째,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서울시정의 인권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하여, ‘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’에 3억 8천 9백만 원 배정하였습니다.  
주요 사업내역은,
    - 서울인권아카데미 운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억 1천 5백만 원
    -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6천 5백만 원
    - 인권강사 양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6천 1백만 원등 입니다.

  
- 둘째,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인권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, ‘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’에 1억 7천 6백만 원 배정하였습니다.

○ 셋째, 서울시민 인권취약분야 및 사각지대파악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, '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'에 1억 5천 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.

주요 사업내역은,

- 인권 현안 실태조사 6천만 원
  -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8천 2백만 원
- 등 입니다.

○ 넷째, 범죄피해자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, '범죄피해자 보호 지원' 에 1억 5천 2백만 원 배정하였습니다.

○ 마지막으로, 국내외 인권 거버넌스 참여주체 간 교류·협력의 장인 '서울 인권 콘퍼런스' 개최에 1억 1천 1백만 원 배정하였습니다.

지금까지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.

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저를 비롯한 인권담당관 전 직원은  
2021년에도 ‘혐오와 차별’을 넘어 ‘포용과 참여’를 통해  
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데 중점을 두고  
예산을 편성하였으나,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

- 오늘 지적하신 사항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 
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,  
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는 예산이  
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
  
- 아무쪼록, 2021년 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 
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을  
원안대로 심의·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0. 12. 1.

인권담당관 김 병 기